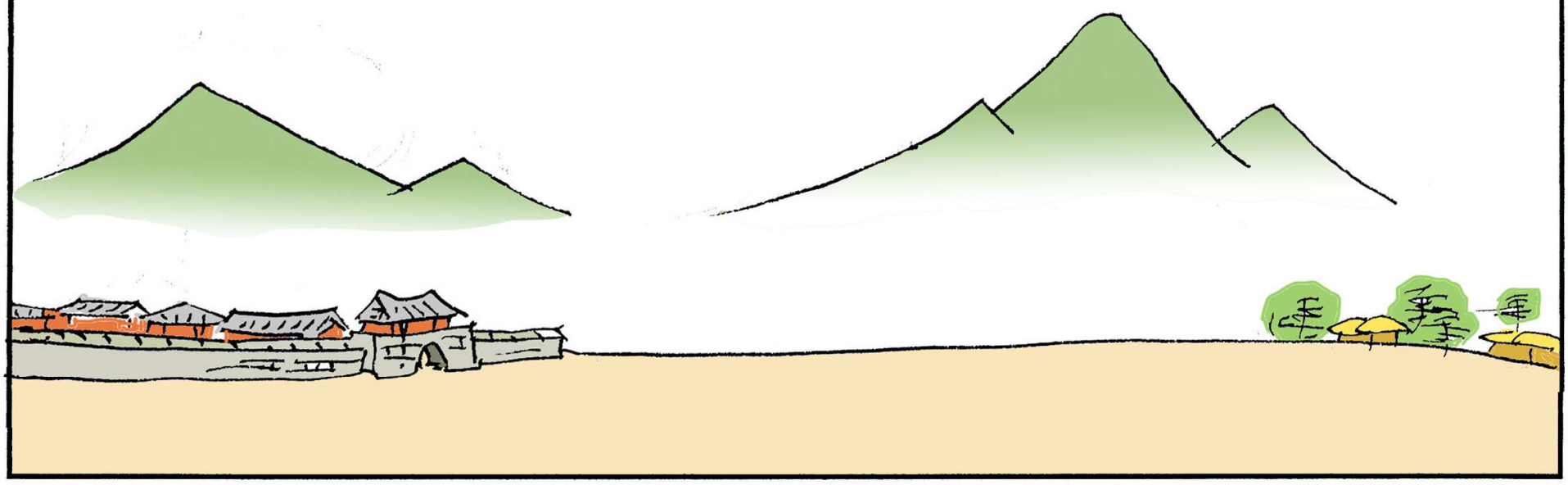
30. 벼슬보다 고향으로(50세)

-1550년 한양



*탈고신: 현직급에서 2등급을 강등

퇴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.

하하하

탈고신 2등을 받은 퇴계는 오히려 기뻐하였다.

이제야 비로소 고향에서 마음 놓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.

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무원 임용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이다. 일반인 같았으면,

아우 뭐야! 출세길이 영영 막혀버렸잖아!

집 서쪽 시냇가에 한서암을 지었다.

졸졸 졸…

퇴계선생이 고향에 내려와 자리잡았답니다.

후학을 양성하신다죠?

우리도 가서 배웁시다.

정원이 다 차기 전에 빨리빨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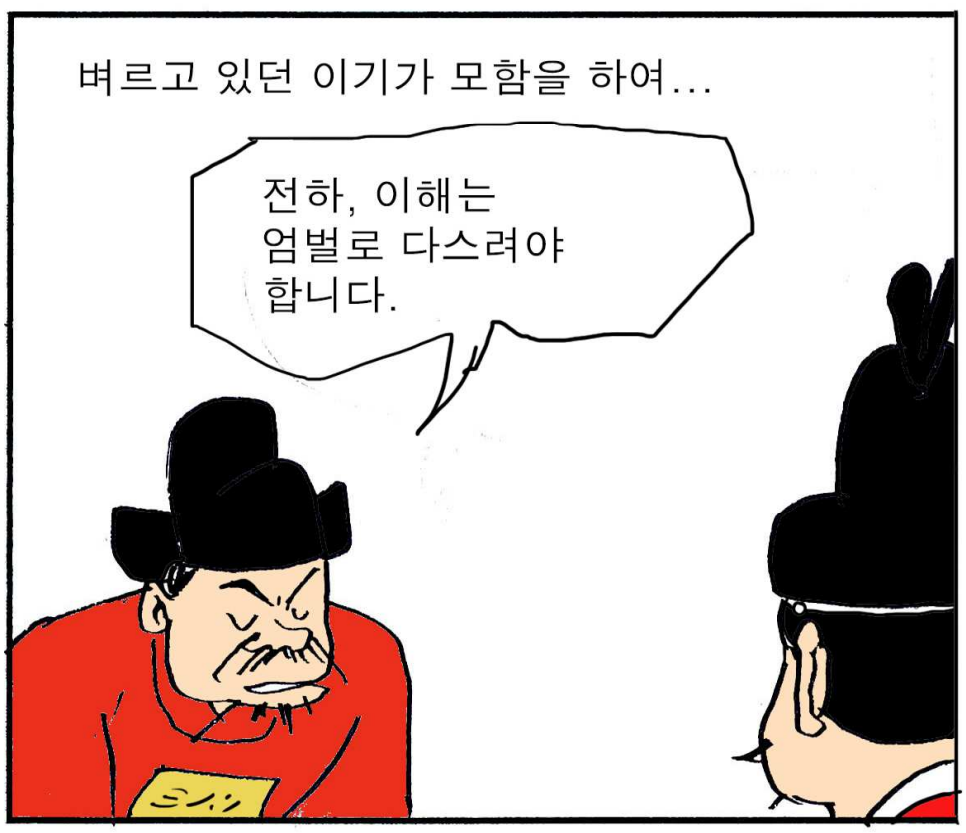
소문을 듣고 오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났다.

6월에 정민공(이 해의 시호)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.

정민공은 부정과 불의를 모르는 고결한 선비였다.
사헌부에 있을 때

이기를 탄핵한 적이 있었는데

벼르고 있던 이기가 모함을 하여...



억울히 고문을 당하고 함경도 갑산으로 귀양을 가는 도중에 고문 후유증인 장독杖毒으로 경기도 미아리에서 세상을 떠났다.